

“수사정보 유출 TF팀 위법·부당 수사”

피의자 신분 경찰관 인권위 진정서 접수...억울함 호소

“수사 과정에 ‘X X도 아니고 X X X 나’ 막말도 들어”

광주경찰청 “적법 절차 밟아 수사...문제 없다” 해명

광주경찰청 수사정보 유출 의혹 특별수사팀(이하 TF 팀)이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피의자 신분인 경찰관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인은 최근 수사 정보 유출 의혹으로 입건된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이다. 이 경찰관은 TF 팀이 절차상 심각한 위법 행위와 막말 등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며 인권위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광주경찰청은 불법적 수사는 없었다는 해명이다.

24일 광주경찰청과 A 경감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지난 4월 중순 부동산 수사정보 유출 의혹 민원과 관련해 TF 수사팀을 구성했다.

민원인이 제기한 의혹 속 경찰관이 포함돼 있는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는 의지였다.

광주경찰청은 TF 팀 출범과 함께 의혹을 받는 소속 A 경감을 대기발령 했다.

A 경감은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중인 지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해당 사건 수인 변호사에게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를 이어가던 TF 팀은 공무원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A 경감을 긴급체포 했다.

당시 A 경감은 “평소 친분이 있던 변호사가 다른 팀에서 수사중인 부동산 사건에 대해 물어왔다. 해당 팀 경찰관에게 내용을 물어봤더니 ‘사건이 중하다’고 해 더이상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TF 팀은 A 경감이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수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그의 은행 계좌 정보 등을 확인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TF 팀은 공무원비밀누설이 아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A 경감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했다.

TF 팀의 수사는 이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A 경감은 TF 팀이 그 동안의 수사 과정에 ▲압수수색 영장 열람권 침해 ▲변호인 참여 및 조력권 침해 ▲위법한 압수 ▲직권남용 검금 ▲불법 수색 ▲언론과 참고인을 통한 피의사실 공표 등이 있었다고 주장

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인권위에 접수했다.

TF 팀 소속 일부 수사관들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의 세부 기재 내용을 읽지 못하도록 하는가 하면 출석 요구 당시 혐의(공무상비밀누설)와 전혀 다른 부패방지법이라는 별건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변호인 임희 아래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자신을 긴급체포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될 만큼 증거가 충분하다면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것인데 TF 팀은 별건 수사를 통한 긴급체포라는 강압적이고 위법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 수사

팀장이 ‘X X도 아니고 X X X 나’라는 모욕적이고 경멸감을 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구속영장이 반려된 뒤 곧바로 석방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정당한 사유없이 3시간 가량 유치장에 감금돼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참고인에게 전화해 마치 혐의가 인정돼 내가 구속된 것 처럼 말하며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내 명예를 훼손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A 경감은 “TF 팀은 수사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감압수사와 위법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털어놔 수사 이어가고 있다. 경찰관인 나를 상대로 한 수사가 이 정도라면 일반인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겠느냐”며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TF 팀 관계자는 “압수수색 등의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 변호인 선임의 필요성을 제기해 그렇게 하라고 했다. 공무원비밀누설 이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A 경감의 차명계좌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었다. 차명계좌에 대한 A 경감의 소명은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 별건 수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차명계좌 속 돈의 출처와 관련해 조사가 모두 끝난 뒤 같은 경찰 조직원으로서 마음 속에 있는 말을 하심坦회하게 했을 뿐 조사 과정에 A 경감의 인격을 모독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A 경감의 피의사실을 공개적으로 브리핑한 적 없다. 유치장 석방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자 등 인권 보장 강화 방안을 수립, 지난해 12월 전국 지방경찰청에 하달했다.

신봉우 기자



잊혀지지 않는 6.25전쟁 제69주년 6.25전쟁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시민이 6.25전쟁 전사자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무등산보호단체 “호텔 철거하고 고급빌라 계획 철회” 촉구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는 24일 “무등산 자락의 한 호텔을 철거하고 고급빌라로 재건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모 호텔 부지에 고급빌라 106세대를 재건축하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건물 분양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빌라 재건축은 시민이 지켜온 무등산을 훼손하는 행위이다”고 덧붙였다.

또 “재건축 지역은 경관심의·건명서를 통해 ‘최근 모 호텔 부지에 고급빌라 106세대를 재건축하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건물 분양

동구청장의 의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사안으로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율리 “건설업체 측은 계획을 자진철회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저지는 물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개발을 저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해남서 대형화물차·1t트럭 충돌...2명 숨져

24일 오전 8시13분께 해남군 마산면의 한 교차로에서 A(70)씨가 운전하는 1t트럭과 B(62)씨의 대형화물차량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1t트럭 운전자 A씨와 동승자가 크게 다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명 모두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서 60대 남성 열차에 치여 숨져

광주에서 운행 중이던 무궁화호에 치인 60대가 숨졌다.

24일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시40분께 광주 광산구 신막동 한 철로를 달리던 용산발 순천행 무궁화호가 A(68)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A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철길 위를 걷고 있던 A씨를 발견하고 수차례 경적을 울렸고 급정거했으나 멈추지 못했다’는 기관사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기관사의 안전수칙 준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임형택 기자

20대 男 같은층 여성 집 침입→17시간 감금

20대 남성이 같은 건물에 사는 여성 집에 들어가 강간을 시도하려다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붙잡힌 남성은 마약 간이조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3시30분께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한 원룸에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을 강간하려 한 A씨(23)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및 감금협박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 여성과 동일한 건물의 같은 층에 거주 중이었다.

그는 이 여성이 살고 있는 집의 문을 두드린 후, 여성이 문을 열자 ‘확인할 것이 있다’면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집에 들어간 A씨는 풀뿔 흉기로 피해 여성을 위협하며 강간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피해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협박하면서 약 17시간을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1일 오전 A씨 집에서 빠져나온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 오전 11시30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체포 이후 A씨의 상태를 수습하며 마약 간이시험 검사도 실시했고, 그 결과 A씨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80대 운전자, 고속도로 20km 역주행

80대 고령 운전자가 휴게소에 들렀다가 진행 방향을 착각해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다행히 사고 없이 경찰에 의해 조처됐다.

24일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1시39분께 “통영~대전 간 고속도로 통영방향을 빠른 속도로 역주행 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곧바로 예상진료에 순찰차를 미리 배치하는 한편 도로에 불꽃 신호탄을 터뜨리고 경적을 울려 반대 방향으로 달려오는 A(88)씨 차를 갖길에 세웠다.

운전자 A씨는 전~통영고속도로 덕유산휴게소에서 서산나들목까지 20여km를 역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그는 휴게소에서 주유를 마치고 진행 방향을 착각해 왔던 길을 되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밤길이 어두워 휴게소 출구를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진영 9지구대장은 “경찰들의 신속한 조치로 차질 발생할 수 있었던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라며 “운전자는 고속도로 진입 전과 휴게소 이용 후 반드시 진행 방향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